

프로축구 전북, 사상 첫 5연패 눈앞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모터스가 사상 첫 5연패에 성큼 다가섰다. 내심 트레블(3개 대회 우승)을 기대했던 울산 현대 축구단은 무관의 위기에 몰렸다.

28일 전북과 울산의 희비가 갈렸다. 전북은 이날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 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7라운드에서 주장 홍정호의 결승골과 문선민의 썩기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울산은 40분 뒤 펼쳐진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0-0 무승부에 그쳤다. 21승(10무6패 승점 73)째를 거둔 전북은 주축한 2위 울산 현대(승점 71)와 승점 차를 2로 벌리며 첫 K리그 5연패에 7부 능선을 넘었다.

다음달 5일 최종 38라운드만 남겨졌다. 전북은 홈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은 홈에서 대구 FC를 상대한다.

승점으로만 따져도 전북이 유리하다. 전북은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 제주를 잡으면 울산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상에 오른다.

비경도 유리하다. 전북이 비기고, 울산이 대구를 꺾어 나란히 승점 74가 되면 다득점을 따지는데 전북이 69골로 울산(62골)에 7골 차로 크게 앞선다.

울산이 기대할 수 있는 역전 우승 시나리오는 대구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북이



전북 현대 모터스가 28일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 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7라운드에서 주장 홍정호의 결승골과 문선민의 썩기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다음달 5일 최종전 남기고 울산에 승점 2차이로 앞서

제주에 패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승점 74, 전북은 73이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 시절인 2017년을 시작으로 조세 모라이스 감독 시절을 거쳐 5년 연속 K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부터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울산은 올해 새롭게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2인자 타이틀을 벗어던지

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대한축구협회(FA)컵까지 트레블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무관의 위기가.

울산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전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리그 2위에 만족했다. 특히 2019년에는 최종 승점이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 뒤져 울분을 삼켰다. 최

종전에서 포항 스틸러스에 1-4로 덜미를 잡히면서 역전 우승을 내줬다. 전북과 울산이 최종전에서 만날 제주(4위), 대구(3위)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한 순위 경쟁을 끝내지 않아 상대들의 저항은 변수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전북과 울산이 모두 우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전이 열리는 다음달 5일 전주와 울산 모두에서 우승 트로피와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강상재 천기범 박지훈

“전역을 신고합니다”

프로농구 강상재·천기범·박지훈 등 코트 복귀

“전역을 신고합니다.”

강상재(DB 합류 예정), 천기범(삼성 합류 예정), 박지훈(인삼공사 합류 예정) 등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 9명이 내달 1일 전역해 프로농구 코트에 복귀한다.

정규리그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어 즉시 전력에 보탬이 될 이들의 합류가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빅맨 자원인 강상재는 군 복무 중에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원주 DB로 트레이드됐다. 새로운 팀을 통해 복귀한다.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함께 가공할 높이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재는 전자랜드(현 가스공사) 유니폼을 입은 2019~2020시즌 평균 8.5점 6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서울 삼성은 천기범의 전역이 반갑다. 천기범은 2019~2020시즌까지 팀의 주전 가드로 활약했다. 김시래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벤치 자원이 약한 안양 KGC인삼공사는 박지훈의 복귀로 로테이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격력을 갖춘 가드로 변준형과 호흡이 기대를 모은다.

이미 풍부한 선수 자원을 바탕으로 단독 선두에 있는 수원 KT는 한희원, 최성모가 전역해 가드와 포워드 포지션에서 운용 폭이 더 넓어졌다.

KBL은 “1위 KT와 6위 DB의 승차가 4경기밖에 나지 않는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라며 “군 제대 복귀 선수들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정동원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고 싶어요”

3일간의 첫 단독 콘서트 성료
앨범 수록곡·커버 무대 선배
임영웅·영탁 등 응원영상 공개

‘음악 신동’ 정동원(사진)이 첫 단독 콘서트 팬들을 만났다.

가수 정동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정동원 1집 이야기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동원은 최근 발매한 첫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타이틀곡 ‘물망초’와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연달아 부르며 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이후 정동원은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

무대 위에 있으니 많이 떨린다. 안 떨릴 줄 알았다. 저의 첫 단독 콘서트에 오신 우추동원 분들 모두 환영한다”라면서 첫 단독 콘서트 소감을 전했다.

정동원은 이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자주 못 보지 않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간 간직해 온 진심을 전했고, 팬들은 연두색 응원봉을 흔들며 화답했다.

그 후 정동원은 ‘소녀’ ‘우리 동네’ ‘육십령’을 포함한 앨범 수록곡부터 ‘곡예사의 첫사랑’ 등 방송을 통해 선보였던 커버 무대까지 팬들에게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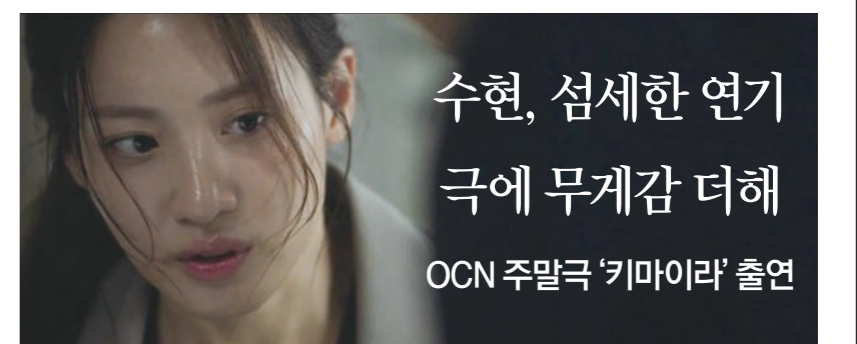
이번 콘서트에는 ‘라켓보이즈’의 출연진들과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의 곽도원, 한 고은,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 정동원과 친분이 있는 여러 스타들의 응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정동원은 ‘잘가요 내사랑’ 뮤직비디오 리액션 코너와 ‘랜덤 의상 고르기’ 코너로 팬들과 추억을 쌓기도 했다. 의상을 갈아입고 등장한 정동원은 성시경의 ‘미소천사’를 안무와 함께 소화했다.

정동원은 “너무 떨려서 잠이 안왔다. 그래서 팬지를 썼다”며 “이번 앨범은 저를 이 자리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할아버지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팬사랑을 드러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수현, 섬세한 연기
극에 무게감 더해
OCN 주말극 ‘키마이라’ 출연

수현(사진)이 OCN 주말극 ‘키마이라’에서 프로파일러 ‘유진’을 연기하고 있다. ‘차재환’(박해수)과 함께 있을 때는 의리있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연쇄 살인범 방이 자신의 방과 똑같다고 하거나 “차형사님에게 이 사건은 고통이었지만 저한테는 재미”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반전을 선사했다.

28일 방송한 10화에서 ‘강상구’(이규복)를 검거해 취조실에서 압박하는 장

면은 짜릿함을 줬다. 유진은 눈앞에서 권총 자살을 목격, 트라우마가 있다. 차재환에게 이를 고백하는 모습에선 한 없이 나약한 면모도 드러났다.

수현은 냉철, 호기심, 불안, 아픔 등 복합적인 감정을 절제된 연기로 표현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유진의 미스터리한 면모까지도 깊이 있는 눈빛으로 그려내는 등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HOME
HOUSE OF MEMORY & ETERNITY

미리 준비하시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당.봉안당 홈

봉안당은 실내남골당의 순화된 이름입니다

강남에서 20분
야탑역에서 5분
가까운 곳이 명당입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 분당에서 유일한 실내 남골당입니다
- 특별한 분들을 모시는 서재형 안치실
- 보다 여유있는 추모공간의 도자기 안치실
- 사계절 쾌적한 향온·향습 시설

NAVER (+Mobile) 분당 봉안당 홈

특별분양상담
031)776-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번지(판교로 808)

이장 개장
파격 혜택